

‘수소차 허브’ 가속 붙고 ‘친환경차 부품 클러스터’ 탄력

광주시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참여 의미와 전망

광주시는 미래형 자동차인 친환경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산업을 민선 6기 역점사업으로 정했다. 또한, 수소 관련 산업을 규제프리존 지역 전략사업으로 지정하고 일찌감치 관련 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 현재 수소 융합스테이션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등 수소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참여 의미=전국 지자체 가운데 수소 관련 사업 추진을 가장 먼저 선택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수소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차 선도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수소 융합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수소차 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가 추진됨에 따라 광주시의 수소차 카셰어링 시범사업이 성공한다면 수소 전기자동차에서 상당한 경쟁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추진 전략=광주시가 마련한 수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산업 육성 전략은 수소 융합스테이션, 수소버스 등 실증단지 조성으로 세계 수소차 산업 선점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육성, 수소차 양산 도시 준비, 인력 양성, MICE 산업 연계 등으로 명실상부한 ‘수소차 허브도시 광주’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수소 허브도시 조성의 핵심 역할을 할 ‘FCEV(수소연료전지차)&EV(전기차) 융합충전스테이션 플랫폼 실증사업’이 주목된다. 기존 수소만 공급하던 충전소 개념에서 가스, 전기, 열 등 다양한

수소·전기 융합충전 플랫폼 수소버스 실증사업 등 추진 친환경차 글로벌 시장 선점

에너지를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공급해 친환경 자동차산업과 에너지산업 육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수소 사회 구현의 중심지로 광주시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6월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기술을 확보한 현대자동차그룹과 수소차 허브도시 조성의 시발점인 융합스테이션 구축과 수소 버스 실증사업을 추진기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국내 최초 융합스테이션은 기존 수소저장설비에 연료전지 발전 설비를 갖춰 수소, CNG, LPG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해 수소·전기 등의 에너지를 만들게 된다. 에너지의 생성뿐만 아니라 판매·저장·분산·발전까지 할 수 있는 복합에너지 충전소로, 수소차와 전기차 충전뿐만 아니라 전기 생산까지 가능하게 하는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

시는 이를 활용해 수소연료전지 전·후방 연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확산 가능한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에는 현재 수소전기차 13대가 운행 중이고, 올해 26대를 신규 보급할 예정이다. 충전인프라는 진곡산단에 수소 충전소와 수소·전기 융합스테이션이 운영 중에 있다. 현재 수소 CNG 융합스테이션 구축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에는 3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24일 서울 더플러호텔에서 광주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 융합얼라이언스’ 발족식이 열렸다. 민관협의체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는 수소전기차 보급·확대, 수소에너지 확산 등을 위한 컨트론타워 기능을 하게 된다. <광주시 제공>

더민주 당권경쟁, 비전 대신 비방전

호남 최고위원은 김춘진·이형석·이재호順 나뉘 말기로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 경쟁이 막판으로 가면서 비전 제시는 실종되고 비방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지난 23일 저녁 MBC 100분 토론에서 김상곤, 이종걸, 추미애 후보(기호순)는 상대방에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전날부터 시작된 권리당원 ARS 투표가 25일까지 계속된다는 점을 의식한 듯 이날 후보들의 토론은 어느 때보다 공세 수위가 높았다.

우선 추 후보의 경우 2009년 환경노동위원장 시절 노동법을 통과시켰던 일이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는 “추 후보가 당시 날치기로 통과를 시켜 노동자들이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자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고 김 후보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항의집회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일을 저질렀다’라고

비판을 했던 사안”이라고 혐공했다.

이에 추 후보는 격앙된 어조로 “그때제가 100점짜리 행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통과시키지 않았다면) 마이너스 100점이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추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저를 겨냥해) 영남당 대표가 탄생하면 대선에서 필패한다는 선동성 지역주의 조장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일생을 바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하에서 통곡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 역시 “혁신위원장 시절 계파주의를 타파하겠다고 하더니 오히려 ‘진문(진문재인)’ 당이 확실해졌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에 “혁신안을 후퇴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지, 더 나은 혁신안이 제시

됐다면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를 향해서도 공격이 계속됐다. 추 후보는 “이 후보가 계속 ‘문재인 필패론’을 얘기한다”며 “지금은 지지층을 모아 후보를 지켜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과거 후단협(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과 무슨 차이가 있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후보는 이에 “지금의 문재인으로 는 힘들다는 것”이라며 “저는 후단협의 공격으로부터 끝까지 노 전 대통령을 지지할 호소하고 있다.”

당권 주자들은 TV토론 외에도 틈나는 대로 권리당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SNS를 활용해 투표 참여를 독려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호남 최고위원을 광주시장, 전남도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김상곤·이종걸·추미애 TV 토론회서 치고받기

남도당 위원장, 김춘진 전북도당 위원장은 24일 오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실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전당대회가 열리는 오는 27일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은 김춘진 위원장이, 내년 3~10월 8개월은 이형석 위원장이, 이후 10개월은 이재호 위원장이 맡는다.

김춘진 위원장은 기간은 짧지만 첫 번째로 최고위원을 맡는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고, 이형석 위원장은 내년 대선에서 더민주 후보의 호남 지지를 이끌어낼 중책을 맡게 됐다.

이형석 위원장은 원외 인사, 이재호 위원장은 재선 의원, 김춘진 위원장은 3선 출신 원외 인사다.

더민주 권역별 최고위원은 서울·제주, 인천·경기, 영남, 호남, 강원·충청에서 1명씩 모두 5명을 뽑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헌정 초유 불발 댄 여야 모두 부담

정기국회 전 ‘추경 돌파구’ 찾을까

최경환 증인 제외 타협 관측

제20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개최를 앞둔 앞두고도 헌정 사상 최초의 추경 불발 사태를 막기 위한 여야의 막판 접촉이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24일 추경과 연계된 조준·해운 구조조정 청문회를 연석회의 형태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수용했다고 밝히면서 야권의 ‘양보’를 압박했다.

청문회 개최 방식을 양보할 테니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안중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을 청문회에 부르자는 야당도 양보하라는 압박이다.

하지만 더민주는 ‘최·중·택(최경환, 안중범, 홍기택)’ 증인체택이 받아들여져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 심사로 재가동된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야당의 대치 국면에서 국민의당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일단, 국민의당은 ‘병행처리’를 타협안으로 내놨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증인 논의와 예정위를 병행하면서 나중에 증인 협상을 일괄 타결한 뒤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최·중·택 가운데 새누리당이 가장 거부감을 보이는 최 의원을 제외하는 선에서 양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기국회가 다가오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막판 중재에 나선 가능성도 거론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당대표까지 친문이 되면 ‘도로 친문당’...정권교체 요원”

이종걸 후보 광주서 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 이종걸(사진) 당대표 후보는 24일 ‘당 대표까지 친문(친문재인) 주류’ 후보가 당선된다면 새누리당이 ‘도로 친박당’이 됐듯 더민주도 ‘도로 친문당’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 21일 서울, 경기, 인천 시·도 위원장선거 결과

표인 이종걸을 당대표로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도로 친문당’을 막고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길”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당의 호남지지를 하라과 관련하여 “더민주에게 호남 민심이 회초리를 든 가장 큰 이유는 호남이 만든 60년 정통 정당의 결실에서 안주하고 정작 호남은 수조 안에 든 물고기처럼 생각해 왔다는 점”이라며 “내년 대선 후보를 결

정하기까지 호남의 민심을 가감 없이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 후 양동시장으로 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찾았던 국립집을 방문했다. 광주시당 대의원대회를 전후해 광주에서 6일간 머물렀던 이 후보는 25일까지 광주에서 당원, 시민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이 후보는 기자회견 후 양동시장으로 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찾았던 국립집을 방문했다. 광주시당 대의원대회를 전후해 광주에서 6일간 머물렀던 이 후보는 25일까지 광주에서 당원, 시민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동림동 프리미엄시대를 알리는
광신프로그레스를 지금 만나보십시오

동림동 광신프로그레스

GwangShin Apartment

광주가 꿈꿨던 퍼스트클래스 라이프
76㎡, 82㎡, 84㎡ 총 234세대

계약금 5% 정액제	발코니확장 무료시공
중도금 무이자	전세대 알파공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본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안전한 일반 분양 아파트**입니다.

문의 062 **511-1141**

시행 |주|에|이|치|원 시공 |주|광|신|중|합|건|설

* 본 홍보물이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로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수변 교통시설 및 수변 현상은 인허가 및 정부시책에 따라 변경 및 취소 가능하며, 실제와 차이가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